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충현

발행인 : 신 성 종
편집인 : 윤 명 식
편집국장 : 손 경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30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심령부흥회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마지막날 봉사관 건축헌금도 실시
전교인 참석하여 큰 은혜받도록

그 동안 기도로 준비해오던 심령부흥회가 오는 10월 8일(목) 저녁 7시를 기해 시작되어 11일(주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된다.

이번 심령부흥회는 김선운 목사(사진)를 강사로 모시고 새벽기도회와 낮성경공부, 저녁심령부흥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아누리고, 영적으로 새로운 능력을 얻으며, 더 나아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도 함께 초청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심령부흥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월 11일 건축헌금 작정 및 건축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목표액은 25억원으로 복지마을, 봉사관, 제2교육관, 벧바게광장 지하주차장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헌금 및 작정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심령으로 준비하여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강사 : 김선운 목사

주일 취사행위, 상거래 음식물 반입 금지
교회 식당 이외엔 어떤 장소에서도 불가

교회는 지난 9월 30일 오후 8시 20분 당회실에서 9월 정기당회를 열어 주일성수를 위하여 취사 행위 및 상거래 음식물 반입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성수주일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치는 매주일 교회 식당을 제외한 모든 장소(본당, 선교관, 교육관 등)에서 취사행위와 상거래에 의한 음식물을 반입 못하게 되었으며, 각 부서에서 임의로 라면을 끓여 먹는 일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히 교육부서, 전도회, 찬양대가 이 일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교회방침에 온 교회 성도들이 따라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다.

카메라 초점

▲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개최된 목회 내조자 기도 훈련

제27대 장로 1명만 뽑혀
공동의회서 박인건 집사 선출

지난 9월 27일 실시한 공동의회에서 제27대 장로로 제직회 서기인 박인건 집사가 피택되었다.

이날 세례교인중 2,940명이 투표했으며, 이중 당선권인 2/3선 1,960표 이상을 획득한 분은 한 사람뿐이었다.

당회는 15명의 장로를 뽑기로 공동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인들의 투표 결과 1사람만 뽑히게 된 것이다.

세례부 부감이기도 한 박인건 집사(61세)는 앞으로 교회에서 실시하는 장로 교육을 받고 노회의 고시를 거쳐 장립을 받게 된다.

묘지 조성 위한 동산 기공 예배 드려

지난 10월 2일 묘지 조성을 위한 동산 기공 예배를 당회장 신성종 목사와 시무 장로, 건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현제2동산 현지에서 드렸다.

우리 교회는 충현제2동산의 1만 4천평의 산림 훼손 허가를 이미 받은 바 있는데, 이번 공사에서 대지 7천평을 조성하게 된다.

충현프리즘

⊙···하늘이 높고 말(馬)이 살찐다는 10월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1992년도 9개월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입에만 재가 있어도 헤아릴 수 없겠다.

받은 은혜, 주신 사랑, 넘치는 축복에, 우리는 몸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찬양하며, 물질로 봉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겠다.

여름 내내 그렇게 울어대던 매미소리도 이제는 사라지고, 달 밝은 밤에 은은히 들려오는 귀뚜라미소리에 계절의 바뀜을 새삼 느끼게 된다. 향수에 젖을 만한 계절이긴 하지만, 믿는 자의 기본 자세인 영적 성숙은 지켜져야 하고 세상을 향해 크리스찬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지난 주일(9월 27일) 실시한 공동의회에서 제27대 장로를 선출했는데,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한 15명에 되지 못하고, 1명만 교인 투표수의 3분의 2를 넘겼다. 당회서 개표를 하면서 느낀 심정이지만, 정말 충현교회 장로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누가 말했는지 몰라도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충현교회 장로 피택되는 일"이라고 어려움을 표현했다.

뽑는 자는 교인이었지만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자.

⊙···결혼 시즌이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매주 평균 4~5명이 결혼식을 올린다. 믿는 자의 결혼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결혼식에 하객으로 오는 손님 가운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아 때때로 교회당 한 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무례한 백성들이 있다. 장소가 교회당인 것을 안다면 참석자들이 예의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결혼을 알리는 주혼측에서는 사전에 초청 대상자들에게 청첩장을 통하여 교회내에서의 금연 이유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교회 관리국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교회내에서의 담배 피우는 불신자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타이르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정기당회 · 제직회 회집 일시 변경

· 정기당회
매월 첫째주 찬양예배 후
· 제직회
매월 둘째주 찬양예배 후

세례식 거행

세례식이 지난 9월 25일 갈릴리홀에서 거행되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 김성윤 목사, 이조웅 목사가 집례한 이번 세례식에서 58명이 학습을, 55명이 세례를, 25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2명이 입교하고, 6명이 개종하였다.

임마누엘찬양대 오케스트라 조직키로

당회는 하나님께 더욱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드리기 위하여 임마누엘찬양대 산하에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 오케스트라의 단원은 우리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구성되고, 내년 1월 첫번째 주일부터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연주하게 된다. 한편 핸드벨콰이어는 내년 1월 첫번째 주일부터 주일 4부 예배 시간에 연주하게 된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영적 열매의 시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마7:15~29)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맺도록 힘써야

1.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7:15)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양떼들을 유혹하고 이리의 근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적인 형태는 양과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라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므로 그들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심은 노략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라고 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등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학적인 특징입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가감하는 행위를 합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빼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덧붙이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덧붙이고 빼는 사람에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은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세상을 구원했지 육체적으로 구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도 역시 이단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즉 계속적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어졌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성경에 첨가될 것이 없습니다.

2.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마7:16)

이단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생활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사과나무와 능금나무, 포도나무와 머루나무를 구별하기 힘들 듯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7:17, 18)

열매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열매, 즉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첫 번째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입니다(히13:15). 입술의 열매란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란 바로 거룩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네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나오는 선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다섯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3. 인생은 건축가

인생은 건축가입니다. 각자의 직업이 무엇이든지간에 자아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건축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건축을 할 때의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같으리니"(마7:24, 26)

건축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건축 방법이 있습니다.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고백입니다(마16:18). 이 말씀은 바른 신앙 위에 우리들의 인생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모퉁이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이것은 집의 기초가 되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지어가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혜 필요

4. 무엇을 사용해서 집을 지을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고전3:10~13)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듯이 터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불을 붙이시는데, 이 때 우리들의 집이 타지 않는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결국 마지막 날에 불에 타고 맙니다. 인간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날에 불로 태워보아야 압니다. 타느냐 타지 않느냐에 따라 그 공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가 와보아야 그 공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사실 집을 짓기는 반석 위에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래와는 다릅니다. 그 모래는 마치 흙과 비슷한 모래입니다. 그것은 햇빛이 내리쪼일 때는 돌처럼 단단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게 되면 뭉클뭉클해지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모래땅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지을 때는 쉬울지 몰라도 비가 오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불이 나면 금방 무너져 없어지고 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형식적인, 죽은 신앙으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나 재리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충현논단 ◀

창조와 진화

김성윤 목사
(제6교구 담당, 에바다부 지도)

우리 인간은 우주와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관심을 쏟아왔다. 이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있고 성경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다. 우주와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창조론을 말하고자 한다.

1. 우주의 시작

진화론자들은 처음의 우주는 스스로 존재했으며 일련의 변화 과정을 통해 오늘의 우주가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것이 대 폭발(the big bang)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큰 가스 덩어리가 폭발하여 이 폭발의 결과로 파편들이 폭발의 진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이 파편들을 "우주진"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우주진들로부터 중력과 인력으로 인하여 별과 행성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태양계는 이 같은 방법으로 형성되었는데 어떤 한 별이 태양 가까이를 지날 때 큰 힘을 가지고 태양의 많은 부분을 떼어가므로 이것이 응축되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와 유성들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만약에 태양을 도는 유성들이 태양으로부터 왔다면 왜 유성들이 태양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원소와는 전혀 다른 원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가? 왜 그 모든 유성들은 태양과 동일한 원소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또 왜 이 거대한 유성들의 덩어리 일부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 가까이에 놓여 있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가? 왜 어떤 유성에는 위성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다른 유성에는 그것이 전혀 없는가? 그리고 어떻게 어떤 한 유성 주위를 돌고 있는 많은 위성들이 그 모성(母星)인 유성과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가? 더 큰 의문점은 큰 폭발을 일으킨 큰 가스덩어리(물질)와 이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생겼는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한다.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우연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2. 생명의 시작

진화론자들은 지상에 초기에 존재하던 요소들, 즉 수소, 암모니아, 메탄, 물 등이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나 공중 방전의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서로 반응하여 아미노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간단한 유기물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생명의 기본 물질인 단백질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화학적 복합물 주변에 얇은 점막이 둘러쌓여 그 안에 걸쭉한 혼합물 속에서 세포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세포가 점점 자라 번식하였고, 오랜 세월 후에 어떤 유기체가 물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땅으로 이주하였으며 이 유기체들로부터 발전(진화)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화론자들은 모든 동식물은 하나의 같은 기원으로부터 진화했다고 한다. 맨 처음의 생물은 오늘날의 아메바와 비슷한 작은 세포 모양의 생물이었는데, 이 생물들이 탈바꿈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동물들의 계속적인 자기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점점 더 복합적인 몸체를 가졌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생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즉 아메바 같은 원생동물이 물고기로, 물고기가 양서류로, 양서류가 파충류로, 파충류가 새와 포유동물로, 포유동물 중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먼저 원시 대기 상태에서 생물체의 기본 물질인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겠는가?

이제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번식 가능한 세포는 가축의 호흡기관에 붙어 병을 유발케 하는 균인 PPLO인데 625종류의 단백질을 갖고 있다.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야만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모두 다 생물체에 필요한 단백질에 소용되는 것은 아니다. 400개의 아미노산이 L 형태의 필요한 아미노산으로만 존재할 확률은 $1/10^{114}$ 이며, 이론적으로 최소한 필요한 단백질을 124개라고 할 때 124개의 그런 단백질이 우연히 형성될 확률은 $1/10^{14136}$밖에 안된다. 이것은 수학 확률적으로 $1/10^{50}$을 한계점으로 볼 때에 생명의 기본 물질인 단백질이 원시 대기 상태에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며 지구상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질 수는 없다.

그러면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 생겼는가? 태초에 생명을 창조한 분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요구되고 있다.

진화론에서는 모든 동물은 단세포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어떤 돌연변이로도 증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개는 여전히 개일 뿐 돌연변이로 소나 말 같은 동물이 되지는 못한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이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화석으로 보여주려고 하지만, 반은 닭이고 반은 뱀이거나, 반은 파충류이고 반은 포유동물인 과도적 형태의 화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생명의 시작이나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생명의 시작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하는가?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모두 그 종류대로 각각 따로 창조하신 것이다(창1:11, 12, 21, 24, 25).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진화론은 이 우주의 시작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잘못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온 우주와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과학적인 증거는 진화론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하나님은 완전한 무로부터 현존하는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창1:1~3).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진실임을 믿는다. 이것은 증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11:3)

전하자-예수 채우자-교회 키우자-천국일꾼

준비되는 승리와 부흥

임성환 목사(제18교구 지도)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여러 성도님들의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금번 하나님의 뜻가운데 이 큰 잔치를 계획케 하시고, 온 교회의 마음이 모여진 가운데 18교구는 미력하나마 복음을 부끄러워 하였던 지난 날, 영혼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 있는 사막 같은 눈을 돌아보며 그리스도 없이, 영생 없이, 생명 없이 방황하며 지옥으로 흘러가는 저 물결 속에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이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이 잔치를 앞둔 18교구의 목표는 충현교회와 한국 교회의 전도 전략의 모델로서 성장해가기를 원하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은 충성함으로 씨뿌리기를 원하는 열의로 흩어진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8교구의 전도 전략을 소개하면 먼저 밤 10시 기도회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전하자 예수, 채우자 교회, 키우자 천국일꾼"의 함성으로 충현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총동원 전도 전략을 세우는 본부를 향하여 올리며, 밤 10시 정시 이때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전도에 대한 부족한 개인 기도 시간을 충족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선정한 구역 명부를(대상자) 손에 들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도하는 부분도 뺄 수 없습니다. 각 전도회장과 부지역장은 기도회 실시 여부를 확인하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포 조직(현재 57개 구역, 37개 기존, 20개 특수구역)인 구역장, 권찰을 활용하여 전도하며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잔치를 위하여 비상 본부를 교회내에 만들고, 24시간 전도를 위한 상담 전화를 교구장 중심으로 설치하고, 권사들로 구성된 부지역장들은 구역장, 권찰들의 전도 운동의 영적인 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도특공대로 활동합니다.

40일 10식 금식기도회와 1일 5분 기도, 5분 전도, 100원이상 기금을 모으는 운동을 위해 저금통장을 준비하여 당일 초청자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며, 잔치의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각 전도회별로 산상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전도 요령 교육은 기도회(교구별, 지역별, 구역별, 교구별로 4차례)를 겸하여 수요 구역장 교육 후에 담당 목사가 교육하며, 금요구역예배는 기도회(통성)를 겸하고, 이어서 전도학교(5회)를 개설하여 담당 목사와 부지역장 지도 아래 전도를 실천합니다. 이때 스티커와 전도지, 초청장의 책임량을 배포하며, 교구의 힘을 모으는 금요찬양집회를 통하여 전도의 간증을 나누고, 전도 상황판은 각 전도회장이 기록하고 전도 목표를 정하여 이미 나누어 준 교구 자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리고 7일 작전은 10월 26일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기하여 이미 배부된 계획서대로 기도하며 실천합니다. 10월 8일부터는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이 기간이 영적 재충전의 기회, 전체 동원의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10월 21일은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92 예수 사랑 큰 잔치 당일에는 18교구 경내에 있는 모든 경로당을 점령하며 개인 사업을 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은 총동원의 날이 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 14:23)

이제 이 모든 계획 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진정 원할 때 승리와 부흥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또는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느냐는 사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를 유별히 보시고 계실 줄을 압니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10월 28일 재림의 날을 넘어서 베풀어질 "11월 1일 충현교회가 개최하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서 만납시다."라고 외치며 그날은 우리에게 한없이 즐거운 날, 내가 생명을 출산하는 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날, 충현의 산실이 생명의 울음으로 하늘 높이 소리쳐지는 날, 오! 이 영광! 이 거룩한 은혜가 기다려집니다.

불, 불, 불, 성령의 폭탄이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 폭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불을 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수천, 수만의 단을 거두는 기쁨을 주소서. 새 생명을 주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태어나게 하소서. 이 민족이 살아야 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면서 다시금 높이 소리치며 외칩니다.

상한 심령의 노래

이건숙 사모

오는 10월 6일 고 백원욱군의 유고시집 출판감사예배를 드리는데, 본 란에 실린 이 글은 유고시집의 추천문으로 예바다부에서 제공한 것이다.(편집자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이런 심령을 소유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다. 백원욱군은 이런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사실 인간이라 엇비슷한 육신을 지니고도 열등 의식을 갖게 되어 있다. 눈가에 흉터가 있어도 마음이 비뚤어지고 다리가 좀 짧아서 절뚝거려도 성격이 변하게 마련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백군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이 모두를 초월해서 굳세게 힘있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백군을 알게 된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또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다만 전화로만 두 번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다. 그러나 세상을 뜨던 마지막 밤 그의 환희에 찼던 음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의 마지막 순간의 말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으리라고 본다.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를 생각하면 위로도 되지만 그래도 가슴이 뭉클하며 아픔이 싸하게 파고든다.

"그렇게 힘차게 살았는데, 성한 사람들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빨리 데려갔을까?"

그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 장르가 다른 시에 대하여 평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시나 소설이나 어느 글이나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며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는 심오한 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백군은 어느 누구보다도 깊고 깊은 죽음의 계곡을 헤매고 다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계곡이 너무나 깊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엄청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소유했기에 성한 사람도 감당 못할 일들을 해내지 않았던가?

어떻게 그 몸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독학으로 해냈으며 더구나 대학까지 다닐 수가 있었단 말인가? 더구나 대학교 입학 시험 때는 6년간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 하나로 실력으로는 붙었지만, 낙방을 시킨 성하고 당당한 사람들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그는 기어이 대학에 들어가는 놀라운 힘과 인내력을 소유했던 것이다.

더구나 그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비정한 현실 때문에 그야말로 억지로 이 사회가 죽게 한 우리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도 그는 힘차고 떳떳하게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며 살다가 갔다. 게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아름다운 영혼의 울림을 시들고 남겨두고 갔다.

잠깐 스치는 인간적인 감정을 노래한 시들이 아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오만하게 읊은 시를 쓴 것도 아니다. 육신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앉아 영혼으로 노래한 시들을 남기고 갔으니 어찌 그의 시를 성한 사람들의 시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인 우리들이 그의 시를 읽을 수 있음을 감사한다. 가장 상한 심령으로 쓴 그의 시를 읽으며, 그는 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경 제2권 - 출애굽기

1. 이름

히브리어로는 베엘레 쉐모트(이것들은 ~의 이름이다)이고, 헬라어로는 엑소더스(탈출)이다.

2. 저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임을 입증하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출17:14, 24:4, 34:27 ; 막7:10 ; 요5:46, 47).

3. 중심 사상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탈출, 율법의 수여, 성막 건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책에는 네 가지의 주로 강조되는 내용이 있다.

첫째가 바로의 압제적 권력으로부터의 구속이다. 이는 미래 전체에 있어서 이스라엘인의 마음을 규정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한 유일자에 대한 영구적인 감사의 빛을 지게 하는 것으로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12:1~14)으로 유형화된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 받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는 죄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구속함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 강조 내용은 하나님의 계약 수립이다(19:1~24:18). 이 계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호와 지속적인 감독을 약속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지킬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강조 내용은 율법이다.

네번째 강조 내용은 예배이다. 이것은 3장에서 언급되고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본질과 모든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필요를 알게 해주었다. 또 성막의 건축과 제사장들의 구별을 위한 준비를 묘사하고 있다(25장~40장).

● 구역예배 ●

(1992. 10. 9)

거룩한 교제의 생활

• 본문 : 히브리서 10장 19절~25절 • 찬송 : 278장, 525장

• 요절 :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리는 시대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영향 아래 주로 물질이나 기계와 교제하다보니 인간성은 상실되고, 인간의 감정은 천박해지고 무감각한 인생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는 어떤 만남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1. 거룩한 교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내용과 관심은 부동산문제나 정치적, 사업적 성공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어떻게 허무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지며 삶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하는 신령한 은사의 감격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2.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은혜 안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준비된 길입니다(히10:20).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고도 풍성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교제의 내용이 깊어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 놀라웁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3. 우리는 성도들 상호간의 거룩한 교제에도 열심으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주고 받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큰 도움을 입습니다. 거룩하고 힘있는 교제를 위하여는 우선 모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모임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5)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임에 열심이었습니다(행2:46). 그리스도께서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18:20). 충현의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와 옴을 볼수록 더욱 예배, 구역 모임, 각종 기도 모임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 결론

축복된 신앙 생활을 위하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간의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조직인 가정과 구역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의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우리는 더욱 성도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뜨거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 적용 및 기도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세속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이고도 아름다운 내용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을 진실되게 나누도록 합시다.